



2021년 4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5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5.(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당자	허제승 사무관(044-203-4089) 장원 사무관(044-203-4081)

202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1. 4. 5.(월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(INSC)와 외국인직접 투자연구센터, 코트라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**202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**를 분석한 자료임
-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3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** 작성하였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
-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 발표되며, '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'21년 7월 발표 예정**

202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신고기준 47.4억불(44.6%), 도착기준 42.7억불(42.8%) -
- * 역대 1분기, 신고기준 3번째, 도착기준 최대 실적 달성 *
- '21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 플러스 전환을 위한 기반 확보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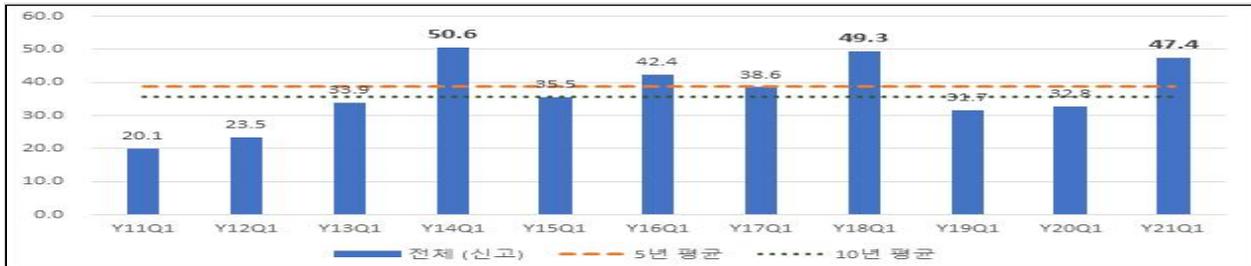
I. 종합

- (실적) '21.1분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.7% 증가한 47.4억불, 도착기준은 42.9% 증가한 42.7억불을 기록함
- 금번 실적은 1분기 기준으로 신고는 역대 3번째, 도착은 역대 최대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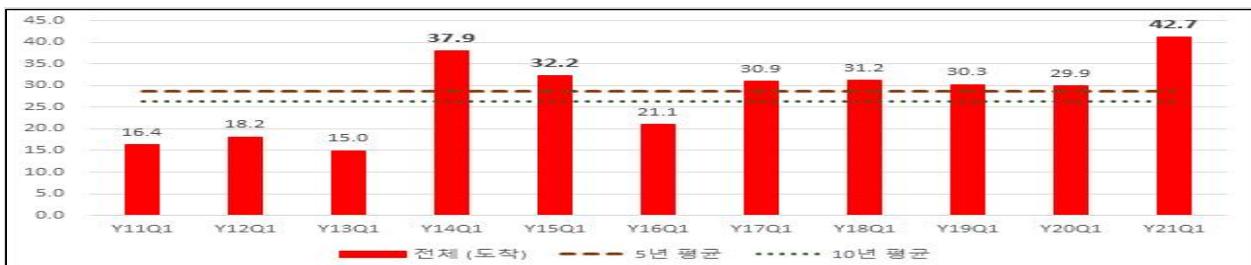
【 최근 10년('11-'20) 1분기 FDI 실적 (단위 : 억불) 】

신고	10년 평균	5년 평균	2021	도착	10년 평균	5년 평균	2021
	35.8	39.0	47.4		26.3	28.7	42.7

< 신고기준 역대 1분기 FDI 실적 (단위 : 억불) >



< 도착기준 역대 1분기 FDI 실적 (단위 : 억불) >



- (평가) 코로나19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도착 기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'21년 외투 플러스 전환 기반 마련
-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 반복으로 지난해 지연되었던 투자가 M&A 투자*를 중심으로 재개되어 신고·도착 모두 크게 증가
- * '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투자가 '21년에는 M&A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(UNCTAD, Bain & Company)

-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글로벌 FDI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*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분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 영향 조기 극복 및 반등 모멘텀 마련

* UNCTAD는 '20년 글로벌 FDI가 '19년 1.5조불 대비 42% 감소한 8,590억불을 기록했다고 발표 '21년에도 5~10% 추가 감소를 예상하며 글로벌 FDI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('21.1월)

-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해 FDI는 신고·도착 모두 10% 이상 감소 하였으나, 화상상담·웨비나 등 온라인IR, 꾸준한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 등으로 금년 1분기부터 40%이상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

* (신고, 억불) : ('19) 233.3 → ('20) 207.5 (△11.1%) / ('20.1Q) 32.8 → ('21.1Q) 47.4 (+44.6%)
 (도착, 억불) : ('19) 133.6 → ('20) 110.9 (△17.0%) / ('20.1Q) 29.9 → ('21.1Q) 42.7 (+42.8%)

- (특징) ①친환경·저탄소 사회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분야, ②4차 산업 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, ③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신산업

- 코로나 19 이후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, 핀테크, 공유경제 등 비대면(Untact) 산업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신산업 투자규모가 신고, 도착기준 모두 증가*

* (신고, 억불) : ('20.1Q)19.9 → ('21.1Q)27.7 (+39.2%) / (도착, 억불) ('20.1Q)20.9 → ('21.1Q)23.5 (+12.2%)

['20~'21 1Q 전통·신산업 외투 추이 (신고, 억불)]



['20~'21 1Q 전통·신산업 외투 추이 (도착, 억불)]



- 전체 외투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*으로, 첨단기술 활용분야 등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관심 지속

* 신산업 투자 비중(신고기준) : ('20.1Q) 60.7%, ('21.1Q) 58.3%, (5년평균) 42.4%

첨단 소부장

- 반도체·이차전지 소재, 수소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분야 투자 지속
- '21.1분기 반도체 재료, 첨단 신소재, 미래차 부품 등 핵심 성장 소부장 산업 분야 투자가 지속*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나, 전체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**

* 최근 5년 평균 기준 소부장 상위 5대 업종(자동차, 전자부품, 화학, 기계, 전기) : ('20.1Q) 1.5 → ('21.1Q) 1.8

** 소부장 분야 전체 투자 규모(신고기준, 억불) : ('20.1Q) 4.47 → ('21.1Q) 2.65

그린 뉴딜

-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서비스 확대 투자가 증가하여 친환경·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에 일조
- 특히, 1분기에는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가 유입되었으며,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

* 그린뉴딜 투자규모 (신고기준, 백만불) : ('20.1Q) 7 → ('21.1Q) 55

II. '21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사례

① 친환경·저탄소 사회 대응을 위한 K-뉴딜 분야 투자 확대

- 태양광·풍력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·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국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 증가

< K-뉴딜 주요 투자사례 >

- ▶ (A社) 풍력 발전단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(독, 0.3억불)
- ▶ (B社)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 조성 (노, 0.1억불)
- ▶ (C社)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리 (이, 0.02억불)

② 코로나 19 이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IT 및 신산업 투자 증가

-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소비(전자상거래), 공유경제,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신산업 투자 증가
- 또한, 고급·다양화되는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한 K-컨텐츠, K-컬처 등 한류 연계형 투자 지속

< IT 및 신산업 주요 투자사례 >

- ▶ (D社)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배달앱 기업 인수 (독, 21억불)
- ▶ (E社) 금융(핀테크)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 (일, 0.15억불)
- ▶ (F社) 글로벌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(싱, 0.5억불)
- ▶ (G社) 교육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 고도화 (미, 0.03억불)
- ▶ (H社) 공유주방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증액 투자 (미, 0.13억불)
- ▶ (I社) 국내 미디어·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합작하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(싱, 1.4억불)

③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 지속

- 반도체, 자동차 소재·부품, 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<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주요 투자 사례 >

- ▶ (J社) 반도체 소재(CMP 슬러리) 공장 설립 증설 투자 (일, 0.14억불)
- ▶ (K社)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 및 신소재 기술 개발 (독, 0.6억불)
- ▶ (L社) 수소차 전용 부품(공기압축기) 개발 및 생산 (중, 0.15억불)

III. 전망과 향후계획

1. '21년 FDI 전망

- (글로벌 FDI) UNCTAD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* 등으로 글로벌 FDI가 '21년에도 5~10% 추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

* 백신보급, 코로나 19 극복시점, 바이든 신정부 정책, 브렉시트 현실화, 중동 정세 등

- (국내 FDI)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*이기는 하나 코로나 19 이후 사업재편에 따른 M&A, 신규 투자 등 FDI의 성장 가능성 존재

*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, 美·中 기술패권 경쟁 심화,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 경향 등

2. 향후계획

◆ K-뉴딜, 소부장 등 우리 산업 정책과 연계한 첨단투자 확대를 통해 “21년 FDI 플러스 전환” 달성(「첨단 외국인투자유치 로드맵」 마련, '21.上)

- ① (수요연계형 투자발굴) 소부장, K-뉴딜 등 우리 산업 정책과 연계한 첨단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핵심 글로벌 기업을 발굴·중점 유치
- ② (첨단투자지구 신설) 既조성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존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·부지이용 특례 등 추가제공(산집법 개정, '20.11월~)
➔ 국내외 첨단기업, 연구시설 등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
- ③ (유치활동 다양화) K-스튜디오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IR 활동을 추진하되,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IR도 적극 추진
- ④ (소통채널 다각화) 해외언론, TV, 방송, 인터넷 등 최대한 다양한 수단의 미디어를 통해 우리 코로나 방역 및 정부 정책과 지원 등 정보 제공, 음부즈만 내 소통채널을 확충하여 신속한 애로해소 지원

IV. 세부동향(국가별 · 업종별 · 유형별)

1. 국가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① 미국 : 신고 2.3억불($\Delta 39.4\%$), 도착 0.3억불($\Delta 87.7\%$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1.3억불, +13.1%), 서비스업 감소(1.0억불, $\Delta 62.6\%$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2.1억불, $\Delta 41.5\%$), M&A형 증가(0.2억불, +3.6%)

② 유럽연합(영국포함) : 신고 31.1억불(+316.8%), 도착 24.4억불(+314.6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1.8억불, $\Delta 50.0\%$), 서비스업 증가(29.2억불, +665.4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3.9억불, $\Delta 32.4\%$), M&A형 증가(27.2억불, +1,561.6%)

③ 일본 : 신고 2.4억불(+91.4%), 도착 2.0억불(+133.7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0.3억불, $\Delta 27.3\%$), 서비스업 증가(2.1억불, +175.2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2.3억불, +116.3%), M&A형 감소(0.1억불, $\Delta 43.4\%$)

④ 중화권 : 신고 8.6억불($\Delta 41.2\%$), 도착 6.5억불($\Delta 51.0\%$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0.7억불, $\Delta 23.6\%$), 서비스업 감소(6.8억불, $\Delta 50.5\%$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5.2억불, +10.2%), M&A형 감소(3.4억불, $\Delta 65.7\%$)

* 중화권 : 중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, 말레이시아

** 중국 : 신고 2.1억불(+130.5%), 도착 0.5억불(+136.3%)

⑤ 기타 : 신고 3.0억불($\Delta 46.7\%$), 도착 9.4억불(+20.8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0.3억불, +1,052.1%), 서비스업 감소(2.6억불, $\Delta 55.0\%$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2.7억불, $\Delta 23.7\%$), M&A형 증가(0.3억불, $\Delta 86.0\%$)

2. 업종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① 제조업 : 신고 4.5억불(△28.0%), 도착 2.7억불(△70.6%)

- (증가업종) 기계장비·의료정밀(0.1→0.7억불), 운송용 기계(0.1→0.4억불)
- (감소업종) 전기·전자(3.1→0.5억불), 화공(2.2→1.3억불)

② 서비스업 : 신고 41.6억불(+57.0%), 도착 39.8억불(+92.9%)

- (증가업종) 정보통신(3.7→25.1억불), 도·소매(유통)(0.6→2.2억불)
- (감소업종) 금융·보험(13.4→10.4억불), 연구개발·과학기술(4.7→1.6억불)

3. 유형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① 그린필드형 : 신고 16.3억불(△13.1%), 도착 10.2억불(△16.6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6.1→3.5억불), 서비스업 감소(12.6→11.7억불)
 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1.4→3.1억불), 도·소매(유통)(0.6→2.1억불)
 - (감소업종) 전기·전자(3.1→0.4억불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3.3→1.2억불)

② M&A형 : 신고 31.1억불(+122.0%), 도착 32.5억불(+84.0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0.2→1.0억불), 서비스업 증가(13.9→29.9억불)
 - (증가업종) 정보통신(0.1→22.1억불), 비금속 광물제품(0.0→0.4억불)
 - (감소업종) 금융·보험(12.1→7.2억불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1.4→0.4억불)

<끝>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투자유치과 허제승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